

#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D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유진 · 이남연\*  
(동명대학교)

1. 서론
2. 연구 방법
  - 2.1. 연구 참여자
  - 2.2. 연구 절차
  - 2.3. 자료 분석 방법
  - 2.4.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타당성
3. 분석 결과
  - 3.1.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
  - 3.2.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
  - 3.3. 대학 속의 이방인
  - 3.4. 사회적 지지자원의 활용
  - 3.5. 심리적 지지기반
  - 3.6. 타유학생을 위한 경험적 조언
  - 3.7. 유학경험의 사회화
4. 결론 및 제언

---

\* 제1저자: 장유진, 교신저자: 이남연

## 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해 D대학에서 학위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 대학생활에 적응하여 1년 이상 학업을 지속한 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일대일 개별심층면담은 1회, 60~80분가량 지속되었으며 그 내용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4단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3개의 하위범주, 1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이들을 모아 핵심 내용을 구조화한 결과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 '대학 속의 이방인', '사회적 지지자원의 활용', '심리적 지지기반', '타유학생을 위한 경험적 조언', '유학 경험의 사회화'의 7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확인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제도의 정립과 한국대학생활에 대한 홍보의 기회 마련을 제안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대학적응, 대학생활 경험, 지원제도, 현상학적

## 1. 서론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은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를 가져왔다. '교육의 국제화' 현상 역시 그가 가져온 변화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다수의 외국인 학생이 학업의 지속을 위한 선택지로 우선 고려하는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류(韓流)를 비롯한 문화강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에 발맞춰 한국에서의 유학을 결정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03년 7,962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Study Korea Project를 시작으로 2004년 16,832명으로 급증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8,962명으로 집계됐다(교육부, 2024).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72,020명(34.5%), 베트남 56,003명(26.8%), 몽골 12,317명(5.9%), 우즈베키스탄 12,025명(5.8%), 네팔 6,135명(2.9%) 순으로 나타나 다양

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대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3년부터 20년간 약 26배 늘어난 숫자로 약 2,525%의 증가율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지영, 2017). 이와 함께 국내 대학에서는 전체인구의 감소와 학령인구의 감소, 특정 수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로 인한 입학정원 미달과 같은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주상현, 2022) 이는 곧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크게 늘리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뿐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국가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준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부족한 입학 자원을 메워 주어(셀익잔, 이길연, 2025)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가능케 한다. 학생들에게 여러 문화와 언어를 경험함으로써(우소희 등, 2025) 다양한 문화에 유연하게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며 글로벌 역량을 기르게 돕는다(이은정, 이은택, 2022). 더하여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리우레이 등, 2022). 졸업 이후 본국으로 귀환하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재가 되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며 국내에 정착하는 경우 국내 산업인력의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강동관 외, 2010; 안영진, 최병두, 2008).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의 향상 및 지역사회와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정부와 대학, 기업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장학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 지원센터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예를 들어, 정부초청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와 대학의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교육 교류의 증진, 세계 우수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친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도모하며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한다(하연섭, 김영록, 2018). 기업에서는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삼성 글로벌장학사업을 통해 국가 간의 인재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차세대 인

재 육성을 지원한다. 각 대학에서도 국제교류처,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등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관리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정연수, 2023).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치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라는 양적 성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중요자원과 생존전략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가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정원의 부족분을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채우고 학교 재정을 충원하나 정작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는 소홀하여(박소진, 2013)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여 중도 탈락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을 하는 등 대학의 관리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경찰뉴스24, 2023). 2023년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과 중도탈락이 2021년 8,525명(7.43%)에서 2023년 9,550명(7.93%)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과 중도탈락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은 사회에도 외국인 유학생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된다(이윤주, 2022). 대학에는 재정에 어려움을 주어 교육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개인은 학업의 기회를 잃게 되고 추후 타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더라도 졸업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김용남, 2009). 중도탈락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남게 되는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불법취업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오예진, 2024).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고 대학에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적응과 대학생활의 지속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적응이란 외국인으로 문화와 환경이 다른 낯선 곳에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윤지원, 김상욱, 2017) 그중에서도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에서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적응을 의미한다(Baker & Siryk, 1984). 외국인 유학생들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낯선 한국에 적응하고 학업적으로는 학업동기, 시간관리, 학업을 통한 목적의식 등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배워 나간다. 사회적으로는

대학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점차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정서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 역할 및 개인적인 심리정서를 돌보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더하여 환경적으로는 대학에 만족하며 애착을 가지게 된다. 곧 대학생활 적응이란 학업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정서적인 면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이 잘 유지될수록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되고 학업완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신감과 도전, 새로운 환경의 경험들로 능력 및 역량이 확장된다(정은지, 김근향, 2021).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은 외부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의 종교, 문화, 정체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강현민 등, 2014)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적응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유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친구가 되어 적응을 돕도록 비교과 활동(Buddy Program), 멘토링 프로그램(김재희, 2022; 정희윤 등, 2025)등을 마련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향상, 한국 문화 이해, 한국어 강좌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이선영, 나윤주, 2018). 애초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TOPIK 5급 이상의 한국어를 갖추도록 교과목을 구성하기도 한다(박소연, 최은경, 2020).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나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외국인 유학생 상호 간의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각종 특강, 동아리, 봉사활동 등으로 대학생활을 돕는다(한안나, 2017). 이렇듯 많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학생 커뮤니티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른 타국의 생활에 더하여 전문분야의 학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언어문제와 음식, 경제, 거주, 의료 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어려움과 학교에서의 학업, 진로 고민을 경험한다.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경험하고 때론 차별과 편견에 맞닥뜨릴 때도 있다. 더하여 대인관계의 문제와 개인의 심리내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한다(Phillips & Norsworthy, 1997).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의지나 심리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미영 등, 2018). 실제로 전문용어가 많은 전공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학업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하며(하정희, 2008)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양지르함, 김사훈, 2019; 이윤주, 2022). 문화의 차이로 인한 소외감이나 무력감 등을 느꼈으며(박은미 등, 2010; 주동범, 김향화, 2013) 대인관계나 진로, 차별 등의 사회적 어려움은 대학 생활의 부적응 원인이 되었다(김민주, 2022; 한하림, 2024).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요인에 대한 연구(김세경, 2017; 주동범, 김향화, 2013; 주월량, 강병현, 2022; 최승은, 2020; 최은숙, 2017), 학업적응과 관련된 연구(김지연, 어성연, 2015; 장경옥, 2018; JIN YUANYING 등, 2021), 과목개발과 관련된 연구(이선영, 나윤주, 2018),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대한 연구(김규식, 2020; 김희정, 홍효정, 2021), 적응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간의 비교연구(김현진, 2018), 진로에 관련한 연구(김효선, 김은수, 2018; 윤혜향 외, 2025)등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타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보고되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제안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초기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전히 적응하여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학생활을 유지하며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아쉬움을 남긴다. 선행연구들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도리어 문화차이, 편견 등을 경험하고 적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김세경, 2018; 이예슬, 김은하, 2015) 김세경(2017)의 연구에서는 1년 미만 거주하였을 때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에 적응하여 1년 이상 학

업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탐색해 보는 것은 이들의 유학생생활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의 정립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마련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적응하여 1년 이상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부산 D대학에서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첫째,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D대학에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에 재학중인 학생, 둘째, 자신의 경험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조리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셋째, 유학기간이 최소 1년이 지나 대학생활에 적응한 자로 제한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학생활에서 1학년을 신입생으로 보는 것과 선행연구의 결과(김세경, 2017)를 기초로 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의 지인을 통해 눈덩이 표집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을 안내한 후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이 연구에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번호	연령	성별	국적	한국체류기간	한국어능력(TOPIK)
1	24세	여	중국	5년 2개월	3급
2	30세	남	우즈베키스탄	5년 4개월	5급
3	22세	남	중국	3년 9개월	4급
4	32세	여	브라질	2년 4개월	-
5	25세	여	중국	3년	5급
6	30세	여	베트남	4년 3개월	5급
7	23세	여	네팔	1년 9개월	-

참여하였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Creswell(2015)과 Dukes(1984)이 3명~10명을 연구의 적정범위로 권장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 2.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경험과 관련된 국내의 문헌을 고찰하여, Tseng(2002)가 범주화한 미국 유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연구 목적에 따른 반구조화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질문지 초안은 연구 참여자 면담에 앞서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과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을 도와왔던 실무자 1인, 법과 인권의 전문가 1인이 함께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반구조화 개방형 면담 질문은 <표 2>와 같다. 반구조화 면담 질문 외에도 연구 참여자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맥락이 반영되도록 추가 질문들을 통해 그 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표 2> 면담 공통 질문

번호	질문 내용
1	“대학생활에서 당신의 일상적 생활 경험(경제·음식·거주 등)은 어떠한가요?”
2	“대학생활에서 학업 경험(언어·학습 등)은 어떠한가요?”
3	“대학생활에서 사회문화적 경험(문화·차별·편견 등)은 어떠한가요?”
4	“대학생활에서 사회적 관계의 경험은 어떠한가요?”
5	“대학생활에서 심리·정서적 경험은 어떠한가요?”
6	“(위의 경험들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결정 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은 1:1 개별 심층면담, 1회당

60~8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필요시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이 녹음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Giorgi, 1997)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김분한 등, 1999).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드러내고 공통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 적합하게 판단되었다. Giorgi가 제안한 자료의 분석단계(Giorgi & Giorgi, 2003)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취되었던 진술의 축어록을 작성하여 전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의 맥락과 전체적인 의미와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정확한 의미단위를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자료를 의미 단위로 나누기 위해 축어록을 읽으며 연구주제와 관련되어 그 의미가 잘 드러난 부분이나 의미의 전환이 나타난 부분을 구분하였다. 이후 중복되는 의미를 통합하여 의미단위를 확인, 추출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비교·분석하여 이론적 틀과 논리의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하고 보다 추상화되며 학문적인 의미로 변환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언어에 내재된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7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따라 구조를 통합하여 14개의 상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언어로 표현한 단어들을 일반적인 의미의 범주로 파악하여 핵심 요소들을 추출하였고 최종 7개의 주제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구조로 통합되었다.

## 2.4.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타당성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통찰과 해석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신뢰성과 타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이혁규, 2004).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1981)의 제안에 따라 연구의 신뢰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Guba와 Lincoln(1981)은 첫째로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제안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반복하여 듣고 읽으며 내용의 흐름에 따라 의미를 정리하였다. 두 번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은 해당 연구의 결과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서나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를 뜻하며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 외의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얼마만큼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외적타당도를 높였다. 세 번째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 절차나 분석이 일관되었는가를 뜻하며,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시 유사한 결과의 도출을 위해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에서 편향되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해석이 편향되었거나 편견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한 반구조화의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유도질문이나 판단을 최대한 보류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 3.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 1년 이상의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경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지각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대학생활의 경험이 삶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은 총 73개의 하위범주, 14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들

범주를 모아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고하는 공통적인 핵심내용들을 구조화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 ‘대학 속의 이방인’, ‘사회적지지 자원의 활용’, ‘심리적 지지기반’, ‘타유학생을 위한 경험적 조언’, ‘유학경험의 사회화’의 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내용 분석 결과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맵고 짠 음식이 잘 맞지 않음</li> <li>· 할랄 음식을 찾기 어려워 차라리 식사를 거름</li> <li>· 배달 음식으로 모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li> <li>· 학생식당의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 아쉬움</li> <li>· 기숙사에서의 급식이 입맛에 맞지 않음</li> <li>· 룸메이트와 번갈아 가며 식사를 준비함</li> </ul>	<p>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음식</p>	<p>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국과 날씨가 달라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림</li> <li>· 아직도 추운 날씨에 적응이 어려움</li> </ul>	<p>적응을 더디게 하는 한국의 가혹한 날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엔 근로, 주말엔 알바로 생활비를 마련함</li> <li>· 부모님이 도와주어 미안함이 큼</li> <li>· 유학을 위해 미리 저축했던 돈을 사용함</li> <li>·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됨</li> <li>· 정해진 수입으로 아끼면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함</li> <li>· 돈이 부족한 경우 같은 국적의 친구에게 빌리기도 함</li> <li>· 2-3일 단기 알바를 하기도 함</li> </ul>	<p>경제적 어려움의 돌파구를 마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룸을 구하고자 부동산을 이용함</li> <li>· 주거에 관련하여 원하는 조건의 정보를 구하기 어려움</li> <li>· 계약문서가 어려움</li> <li>· 혼자 생활하고 싶어 기숙사 대신 원룸을 구함</li> <li>· 룸메이트를 구해 함께 생활함</li> <li>·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원룸에 대한 정보를 얻음</li> </ul>	<p>이국 땅에서 누리는 나의 공간</p>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용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움</li> <li>·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것은 언어에 서투른 내 탓이라고 생각함</li> <li>· 과제시간이 많이 소요됨</li> <li>· 알바로 인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함</li> </ul>	<p>지속되는 학업의 어려움</p>	<p>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시간에 집중하고자 매우 애를 씀</li> <li>· 모르는 부분은 교수님에게 물어봄</li> <li>·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에게 물어봄</li> <li>· 수업내용을 이해하고자 번역앱과 인터넷 검색을 많이 사용함</li> <li>· 교수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함</li> <li>· 전공에 대한 흥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함</li> </ul>	<p>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처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후 본국으로의 귀국과 한국에서 취업을 고민함</li> <li>· 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취업제의를 받음</li> <li>·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가려고 함</li> <li>· 아직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으나 한국에 머물고 싶음</li> <li>·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귀국을 원하는 부모님을 설득함</li> </ul>	<p>진로에 대한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다른 차별의 경험이 없이 모두 친절함</li> <li>· 가끔 출신국가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짐</li> <li>· 개인적인 사생활을 물어보기도 해 불편감을 느낌</li> <li>· 문화의 차이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 조심스러움</li> <li>· 불편감을 느껴도 문제가 생길까봐 말하기 어려움</li> </ul>	<p>차별, 편견에 대한 경험</p>	<p>대학 속의 이방인</p>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T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li> <li>· 팀프로젝트를 하며 학생들과 친해짐</li> <li>· 영어에 수줍어하는 한국 학생들을 이해하게 됨</li> <li>· 'HI' 내가 먼저 인사하게 됨</li> <li>· 먼저 다가가면 한국 학생들은 반갑게 반응함</li> <li>·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관계를 넓힘</li> </ul>	<p>한발 먼저 다가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함</li> <li>· 학교 안의 담당매니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함</li> <li>· 학교 내의 유학생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함</li> <li>· 자국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도움을 주고 받음</li> <li>· 지도교수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함</li> <li>· 한국인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함</li> </ul>	<p>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함</p>	<p>사회적 지지 자원의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면한 문제를 혼자 해결함</li> <li>·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음</li> <li>· 도움을 받을만큼 친한 한국인 친구가 없음</li> </ul>	<p>도움을 받기가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튜브를 보면서 외로움을 달랠</li> <li>· 타지역 외국인 유학생으로 있는 친척에게 연락함</li> <li>·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같은 국적의 학생들과 모국어로 수다를 떨</li> <li>· 활발한 성격이라 외롭지 않음</li> <li>· 언어가 늘면서 자신감이 생김</li> <li>· 언어가 늘면서 대학생활이 재미있고 흥미로움</li> <li>·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김</li> </ul>	<p>심리정서의 경험</p>	<p>심리적 지지기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시에 학점이수 및 졸업요건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함</li> <li>· 학교 건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li> <li>· 강의실이 어딘지 찾기가 어려웠음</li> <li>· 소수 국적의 유학생들은 별도의 커뮤니티가 없으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관심이 필요함</li> <li>· 한국에 올 때 계절에 맞는 옷이 필요함</li> <li>· 학교의 온라인 앱 및 시스템의 사용에 도움이 필요함</li> </ul>	<p>초기 대학생활의 불편함</p>	<p>타유학생을 위한 경험적 조언</p>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 초기 다른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유학생들을 돕고자 함</li> <li>·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고국의 지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함</li> <li>·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지인들에게 유학을 권유함</li> <li>· 자국의 다양한 축제를 한국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음</li> </ul>	대학생할 경험 위에 확장되는 관계들	유학경험의 사회화

### 3.1. 대학생할에서 경험하는 일상

#### 3.1.1.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음식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음식의 다양함에 감탄하며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향신료가 많아 맵고 짠 것은 아직까지도 적응이 어려우며 모국 음식이 그렇다고 하였다. 또한, 할랄 음식을 찾기 어려운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 음식 맛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 집에서 먹던 음식 많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요. 요즘은 배달을 많이 이용해요. 한국은 배달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식당은 잘 안가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먹던 음식이 많이 생각나요.” (참여자 5)

“할랄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리할 때 할랄 방식의 고기와 일반 고기가 섞이면 안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주기 어려운 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점심은 거의 굶어요. 해산물은 괜찮아요. 근데 학생 식당에는 해산물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 행사에 햄버거 쿠폰을 제가 제안했어요. 새우버거를 먹으면 되거든요. 새우버거 좋아해요.” (참여자 2)

#### 3.1.2. 적응을 더디게 하는 한국의 가혹한 날씨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한국의 날씨가 어색하고 추위는 아직까지도 적응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다양한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도 날씨로 인한 신체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날씨는 아직도 적응이 안돼요. 특히 추운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춥지 않거든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감기에 많이 걸렸어요. 오늘도 비가 오고.. 좀 추운 것 같아요.” (참여자 6)

“제가 있던 곳은 이렇게 다양한 날씨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옷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옷을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해요.” (참여자 5)

### 3.1.3. 경제적 어려움의 돌파구를 마련함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아껴쓰거나 등의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였다. 본국에서 지원받는 돈을 미안해 하면서도 공부하는 동안은 도움을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아껴쓰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지원을 약간 받지만 평일엔 학교에서 근로를 하고 주말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해요. 좀 피곤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가끔 힘들다고 느끼긴 해요.” (참여자 1)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본국에 집이 있는데 유학오면서 집을 렌트 했더니 렌트비가 들어와요. 공부하는 동안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참여자 4)

### 3.1.4. 이국 땅에서 누리는 나의 공간

연구 참여자들은 유학초기 기숙사에서 거주했으나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는 불편감,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으로 학교 근처에 생활공간을 마련하였다.

“친구랑 같이 살아요. 월세가 비싸니까 같이 나눠서 내요. 부담도 적어요. 친구랑 같이 있으니깐 좋아요. 요리도 같이 돌아가며 하거든요. 내가 늦게 들어가면 친구가 밥을 해놓고 친구가 늦으면 내가 하고 이런 식이에요. 기숙사보다 편해요.” (참여자 3)

“부동산을 많이 다녔어요. 부동산들은 대부분 친절했어요. 이 근처에 저 같은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런데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서류작성도 너무 어려웠어요. 뭘 잘 모르니까 그냥 부동산 중에서 내 느낌이 제일 좋은 곳을 골랐어요.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서로 여기 빈방 있다, 여기 방 나올거다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요.” (참여자 5)

### 3.2.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

#### 3.2.1. 지속되는 학업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인들의 언어 여건에 따라 영어 트랙과 한국어 트랙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언어의 어려움이 학업에 영향을 주었고 때론 자신의 탓을 하기도 하였다.

“알바하느라 공부시간이 모자라요. 수업시간에 집중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교수님들은 잘 설명해주려고 해요. 내가 한국말에 아직 모자라서 그래요. 듣는 건 하는데 말하는 건 잘 안 돼요. 교수님들이 수업시간에 설명해 주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한국말을 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6)

“처음에는 언어에 적응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수업을 하면서 왜 외국인을 학생으로 받으면서 외국어를 한마디도 배우지를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자기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어하니깐, 한국어에 엄격한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여전히 공부가 어렵지만 괜찮아요. 아! 발음이나 문법 문제가 어려워요.” (참여자 7)

#### 3.2.2.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처 방법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수업시간에 번역 앱을 켜놓고 활용하며 교수나 팀프로젝트에서 친해진 친구들에게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언어 때문에 수업할 때 힘들어요. 한국 친구랑 말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한국 친구랑 좀 친해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언어가 되니까 친해져요. 과제를 같이 하면서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한국 친구들이 친절해요. 잘 설명해줘요. 제가 많이 물어봐요.” (참여자 3)

“수업시간에 모르는 건 바로바로 검색해서 찾아요. 앱을 사용해요. 파파고. 번역해서 보고 검색해요. 휴대폰을 책상에 올려놓고 수업해요. 수업시간에 휴대폰이 꼭 필요해요. 교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다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앱을 써요.” (참여자 6)

### 3.2.3. 진로에 대한 고민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취업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직업의 기회를 가지고 싶어하였다. 또한, 직업에 대한 염려는 되나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어떻게 진로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금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졸업하면 여기서 같이 일 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한국에서 일했는데 그때 일하던 곳 사장님도 연락해서 졸업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직장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2)

“졸업하면 한국에 있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공부가 끝나면 비자 연장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고민이에요.” (참여자 1)

## 3.3. 대학 속의 이방인

### 3.3.1. 차별, 편견에 대한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중에서 뚜렷한 차별이나 편견의 경험보다는 가끔 미세하게 불쾌한 느낌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대학 내에서 소외감을 가지게 하였으나 외국인이라 참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문화차이에 대해 차별적인 말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어도 많고 문화도 100개 넘게 많아요. ‘니네 이렇다며?’라며 물어보는데 처음엔 일일이 대답해 줬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너무 다양해서. 그런데 방송을 봤거나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나 니네 나라는 그렇다고 하는 게 좀 기분이 나빠요.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참여자 7)

“가끔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말하면 진짜라고 믿는데 우리가 말하면 뭔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데 가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야 하는거 아닌가 걱정이 많아서 가급적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참여자 6)

### 3.4. 사회적 지지자원의 활용

#### 3.4.1. 한발 먼저 다가섬

연구 참여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먼저 인사하며 다가가려 하고 있었다. 수줍어하는 한국 학생들을 이해하며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대인관계를 넓혀가고 있었다.

“한국인 학생들은 먼저 인사를 하는데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마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대화를 피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7)

“한국학생들과 함께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말은 잘 안 통해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소통해요. 재미있어요. 문화체험의 날(Culture Day)도 있는데 다른 나라 학생들을 만나요. 서로 다른 문화를 보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참여자 4)

#### 3.4.2.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학교의 지원센터나 지도교수,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었다.

“베트남이나 중국 학생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국적이 같은 친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 친구들과 어울리고 저기 친구들과 어울리고 최대한 많이 어울리려고 해요. 문제가 생길 땐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해요. 되게 되게 친절해요. 매우 좋은 분이예요. 다 도와주려고 하고 늘 힘이 되어줘요.” (참여자 4)

“교수님도 많이 도와줘요. 학교에 지원센터(유학생 지원센터)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저번엔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지나가는 한국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만 많이 친절해요.” (참여자 6)

### 3.4.3. 도움을 받기가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때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고 그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한국인 친구가 있었으면 도움이 되었겠다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을 만큼 친한 한국인 친구가 없는 것에 아쉬워하였다.

“한국말이 잘 안 통하면 도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연락해요. 가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도와줄 한국 친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한국 학생들과 입장이 많이 다르고 일상적인 것들도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밖엔 없어요. 언제든 학교에 얘기하면 되지만, 가끔은 개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참여자 3)

## 3.5. 심리적 지지기반

### 3.5.1. 심리정서의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서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이었다. 외로움

을 느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며 재미와 흥미를 더 깊이 느끼기도 하였다.

“여가시간에는 책을 보기도 하고 한국 예능을 봐요. 방학에는 서울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너무 외롭다 싶을 땐 유튜브를 봐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처음처럼 힘들진 않아요. 적응도 됐고 학교생활이 만족스럽거든요. 학교에서 대부분이 친절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기분전환을 해요.” (참여자 7)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워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하거든요. 내가 활발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처음엔 한국에 대한 기대도 많이 컸지만 외롭기도 했는데 이제 재미있어요. 같은 국적의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참여자 1)

### 3.6. 타유학생을 위한 경험적 조언

#### 3.6.1. 초기 대학생활의 불편함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초기에 경험했던 불편함들을 생각하며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낯선 곳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며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는 것이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입학하고 졸업학점이나 수강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졸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봤거든요. 꼭 들어야하는 수업과 내가 골라도 되는 수업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내를 받아도 처음엔 잘 모르거든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참여자 2)

“학교가 너무 좋았는데 강의실을 못 찾겠더라고요. 어떤 건물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교 건물과 가게 등의 지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5)

### 3.7. 유학경험의 사회화

#### 3.7.1. 대학생활 경험 위에 확장되는 관계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대학생활과 한국문화를 고국의 지인들에게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유학을 권유하였다. 또한, 자신의 대학생활적 응초기를 회상하며 대학생활을 시작한 다른 유학생들을 돕고자 하였다.

“학교가 너무 좋아요. 한국 생활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해요. 여기 학교 오라고. 그리고 한국 좋다고 얘기해요.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한국오면 학교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하고요. 여기에 같은 나라 학생들이 많아서 괜찮다고 얘기해줘요.” (참여자 6)

“우리끼리 소통하는 페이스북이나 카톡이 있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친구가 초대해줬어요.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젠 저도 처음 학교에 온 친구들을 초대해서 도와주려고 해요. 처음엔 힘드니까. 한국말도 잘 안 통하니까 누군가 같이 있으면 힘이 났거든요.” (참여자 1)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일상적인 삶의 경험들을 하고 있었다. 이 경험에는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경험들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경험이 포함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게 이어짐에도 음식과 날씨에는 적응이 어려웠고 대학생활 초기 기숙사에 거주하던 것과는 달리 별도의 거주공간을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 음식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학생식당의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 대학생활 초기에만 잠시 이용한 후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무슬림 유학생들은 할랄 음식에 대한 제약으로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무슬림 유학생들은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애, 2014).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들

의 문화와 요구를 존중한 학생식당의 다양한 메뉴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은 초기 적응과정에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고하는데(정지아, 부향숙, 2018; 하정희, 2008)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 사용하고 있었다. 대학생활 초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들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점차 언어가 늘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전후로 등록금이나 용돈, 생활비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여러 경험들을 하고 시야를 넓혀가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강경미, 장정윤, 2020). 연구 참여자들도 교내의 근로활동에서는 대학생활 초기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학생들을 돕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교외의 아르바이트에서는 사회생활의 경험을 늘려가고 친구를 사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아르바이트 기회를 연계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과 한국사회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장학금 수혜가 학업에 집중하게 도와주어 학업지속과 학위취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Florida College Access Network, 2013; Scott-Clayton, 2011)와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장학금의 효과는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경우 극대화 되었고(Florida College Access Network, 2013) 장학금 유지 조건으로 최소 평점과 최소 이수 학점을 내세움으로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였던 것이 효과적이었던 바(Scott-Clayton, 2011),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고 장학금 설계 시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익숙하다 해도 전공수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활 초기에 위축되었던 것과 달리, 능동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방법을 찾아 실현하고 있었다. 수업시간에 인터넷 및 번역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이해하려 하고 수업 중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

내었다. 팀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한국학생들과 어울리며 노력하면서 학업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였다. 이는 한국어 수준이 높아지며 학생들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학업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많이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학업적응과 사회적응 및 대학애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김지연, 어성연, 2015),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움요청에 교수자 및 또래 학생들의 긍정적인 도움행동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수자의 지지와 또래 학생들의 격려를 통해서도 학업적응이 높아졌는데 이는 형식적인 뿐인 안부 인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박진우, 홍현미, 2020).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주위의 지지와 격려,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은 진로를 고민하였다. 민숙원 등의 연구(2020)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약 35%가 취업하여 국내에 남기를 원한다고 보고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하는 이유가 학위 취득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취업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라는 결과(김지혜, 2021)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도 가능한 한국내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구직정보의 탐색이나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활성화가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노은미, 이찬, 2023).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공의 선택,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현실적인 안내가 필요하며 진로탐색, 진로정보 수집, 현장탐방, 채용박람회 등 진로와 관련된 여러 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속의 이방인과 같이 한국문화에 섞이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중 가끔 모국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수자이며 마이너로 취급되므로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특히 배타적 민족주

의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많다. 이는 대학생들의 인식과 차별에 영향을 주어(김종태, 한기덕, 2013) 결국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과 행사, 팀프로젝트, 수업 등 학교생활 곳곳에서 차별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미세한 차별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하였다(민예슬, 김창대, 2018). 차별의 경험이 애매모호한 경우 자신 개인의 탓을 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조영아, 2011; Taylor & McKirnan, 1984)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소수자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존중하는 대학공동체 차원의 배려와 지지의 공감대가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사회적 지지자원을 적극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대학생활 초기에 거의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당면한 학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강현민 등, 2014; 박순영, 2016)였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한국 학생들의 수줍음을 이해하고 먼저 인사하며 다가가려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참여함으로써 관계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다. 또한, 그 관계의 폭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들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경험들을 하고 있었다.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적응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성진(2021)의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대인관계 확장을 위하여 한국 학생들과의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체육대회 등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연구 참여자들도 대학생활이 익숙해지며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도교수, 한국인 친구들, 담당매니저나 자국 유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의 사회적 지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특정한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고, 도움을 받을만한 한국인 친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MT, 학교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스스로의 심리정서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활 초기와 달리 한국어가 늘어남에 따른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를 통해 대학생활과 한국 생활의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라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고 수다를 떨거나 유튜브를 보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고국과 집, 가족을 그리워하고 낯선 외국에서의 소외감이나 고립감에 쉽게 노출된다. 낯선 문화나 차별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대학생활 초기에 어려움을 겪으나 (김미영 등, 2018)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에 차츰 적응하며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방법들을 찾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려 하였고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심리정서 돌봄을 위해 스스로의 자원을 활용했을 뿐, 학생상담센터나 인권센터를 이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언어의 장벽이 부담스럽고 소수자인 자신들의 입장이 잘 반영될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대학의 지원 시스템이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이 오래 되었음에도 교내의 지원기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 정보제공의 부족,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 등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실제 교내 지원기관들은 각종 홍보물과 안내문구가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작·제공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기관의 위치 등의 정보가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정선요 등, 2021) 언어적 한계나 정보부족 등으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 심리, 적응, 진로, 학업 등의 여러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를 사용한 홍보와 정보제공, 상담지원이 필요하겠다.

여섯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다른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거나 유학을 권유하는 등 유학경험의 사회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먼저 경험한 자신들의 초기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만한 부분들을 탐색하고 조언하며 깊이 있는 상호지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적극성을 띄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목표가 뚜렷하며 도전의식을 가진다. 경제적·심리적으로 독립을 준비하고 자기계발의 특징을 나타낸다(최현실, 2018). 서영주의 연구(2020)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응초기에 경험했던 스트레스를 미래의 고민으로 변화시키면서 능동성과 주체성이 향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을 따라 초기 대학생활 적응 과정을 잘 지나도록 집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대학생활의 초기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심리적 지원군이 되고 대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대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국의 지인들에게 유학을 권유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우리나라와 본국 간의 우호적인 가교 역할을 기대했던 것에 부응하는 결과이다(강동관 등, 2010; 안영진, 최병두, 2008).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으로의 유학을 독려하는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이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개인의 경험을 널리 알리고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자국에서 한국의 대학생활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더 넓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해 알리고 국내 대학을 홍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특히, 유학생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대학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적응이 된 부분과 아직도 적응과정 중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초기 대학적응 이후의 대학생활을 이해하고 향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지원제도가 정착되었으나 실제 대학생활에서의 경험을 탐구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여 계

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관심이 필요하겠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대 및 진로 교육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 학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이어나가며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진로설계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넷째, 국내대학과 한국문화의 교두보가 될 홍보의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소감을 밝히고 대학생활을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충원된다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어려운 대학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7명이며 모두 D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D대학에서도 좀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과 학교를 넓혀 체류기간별, 성별, 나이별 그룹으로 묶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탐색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와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학생활의 주도성이 높고 삶에 적극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긍정적이고 활기찬 내용들이 주로 보고되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유학생 커뮤니티에 소속되지 않고 홀로 대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험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대학생활을 지속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탐색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조용히 학업에만 열중하고 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경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분석자료의 수집이 일대일 면담의 1회성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 각 연구 참여자와 그들의 경험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탐색했으나 반복 면담이나 추가 자료 수집이 없었던 것은 현상학적 연구의 깊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에는 반복적인 면담이나 일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추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그들의 경험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경미 · 장정윤(2020). 사진을 통해 살펴본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의 대학 생활, <생태유아교육연구> 19(4), 25-57쪽.
- 강현민 · 니고라혼 · 홍유나(2014).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4), 215-240쪽.
- 김규식(2020). 외국인 유학생 학교적응 지원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시안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53, 155-180쪽.
- 김미영, 이유아, 송연주(2018).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과 극복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4(1), 481-503쪽.
- 김민주(2022).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성숙도, 사회적지지, 취업장벽 및 대학만족도가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효과, <교정상담학연구> 7(1), 69-104쪽.
- 김분한 · 김금자 · 박인숙 · 이금재 · 김진경 · 홍정주 · 이미향 · 김영희 · 유인영 · 이희영(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쪽.
- 김세경(2017).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 999-1010쪽.
- 김세경(2018).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인간관계의 매개효과 및 체류기간의 조절효과, <지역과 세계> 42(2), 127-149쪽.
- 김용남(2009). 대학생의 학업중단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희(2022). 중국인 유학생 대상 대학생활형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연구, <교양교육연구> 16(5), 381-396쪽.
- 김종태 · 한기덕(2013). 한국 대학생의 외국인 차별 의식의 담론적 근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13(6), 679-706쪽.
- 김지연 · 어성연(2015). 서울시 소재 사립대학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과 학업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모텔검증, <한국교육문제연구> 33(3), 93-116쪽.
- 김지혜(2021).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분석 연구, <교양교육연구> 15(6), 352-365쪽.
- 김현진(2018).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비교연구-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9(4), 31-63쪽.
- 김효선 · 김은수(2018).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국 및 베트남 유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47, 51-67쪽.
- 김희정 · 홍효정(2021). COVID-19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대학

- 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1(4), 55~78쪽.
- 노은미·이찬(2023).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교육 요구분석, 〈취업진로연구〉 13(4), 45~67쪽.
- 리우레이·왕샤오전·이명희(2022). 지속가능한 대학캠퍼스의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유학생의 활동과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통합학회〉 40(5), 87~104쪽.
- 민예슬·김창대(2018).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경험이 매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내부귀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9(6), 113-127쪽.
- 박소연·최은경(202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설계: D대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4), 381~405쪽.
- 박소진(2013). 한국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서울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6(1), 191~234쪽.
- 박순영(2016).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지역사회연구〉 24(2), 75-102쪽.
- 박은미·황빙의·정태연(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스트레스研究〉 18(2), 145~152쪽.
- 박진우·홍현미(2020).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능동적 학업참여를 위한 홀리스틱 교육방안,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4(1), 1~30쪽.
- 서영주(2020).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생활경험 내러티브 탐구: 부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35-58쪽.
- 셀익잔·이길연(2025).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방안 연구, 〈아시아연구〉 28(1), 131~148쪽.
- 안영진·최병두(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476~491쪽.
- 양징르함·김사훈(2019). 재한 몽골 유학생의 중도 탈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5), 219~236쪽.
- 우소희·이창섭·서승범(2025).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 지원 방안: 사례연구를 통한 통찰, 〈지식과 교양〉 17, 299~319쪽.
- 윤지원·김상욱(2017).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32, 29~56쪽.
- 윤혜향·김지영·오윤희·이미나(2025).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적응과 진로선택에 대한 경험사례-베트남 유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학회지〉 6(1), 5~28쪽.
- 이선애(2014). 수도권 이공계 중심 대학 무슬림 유학생의 대학생활과 종교생활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나윤주(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실태조사-교양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167~193쪽.
- 이성진(2022). 외국인 유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대학 생활영역이대학생활 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3(4), 2885~2900쪽.
- 이윤주(2022). 중도탈락 귀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4(4), 141~168쪽.
- 이예슬 · 김은하(2015).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295-316쪽.
- 이은정 · 이은택(2022). 국내 대학의 핵심역량 탐색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8(3), 567~593쪽.
- 이지영(2017).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업부적응 요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혁규(2004). 질적연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7(1), 175-210쪽.
- 장경옥(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1), 169~177쪽.
- 정선요 · 이연우 · 김치용(2021). 중국인 유학생의 아증후군적 우울증 회복을 위한 방법 연구,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4(10), 1425-1434쪽.
- 정연수(2023). 유학생 유치를 위한 H대학교 국제교류원 교수의 내러티브 연구: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11), 274-289쪽.
- 정은지 · 김근향(2021). 외국인 유학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187-194쪽.
- 정지아 · 부향숙(2018). 한국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식유형, 〈다문화교육연구〉 11(3), 169-198쪽.
- 정희윤 · 홍세원 · 황동연(2025).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해석적 연구:A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7(3), 191-226쪽.
- 조영아(201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1), 1-19쪽.
- 주동범 · 김향화(2013).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쪽.
- 주상현(2022).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대학조직의 변화 방향, 〈지방정부연구〉 25(4), 237-261쪽.
- 주월랑 · 강병현(202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적응과 한국어능력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1〉 13(1), 231-246쪽.
- 최승은(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8(1), 143-167쪽.
- 최은숙(2017).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적응 현황 및 학습자 요구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4(1), 223-251쪽.
- 최현실(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 구) 16(1), 71-93쪽.
- 하정희(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쪽.
- 한안나(2017).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 D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0(4), 111-138쪽.
- 한하림(2024). 학부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성격적 요인, 사회적 관계, 대학만족도, 인식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21(4), 239-268쪽.
-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179-189.
- Dukes, S.(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197-203.
- JIN YUANYING, XUNUO, 안현선 (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2011~2020), <다문화교육연구> 14(2), 55-71쪽.
- Scott-Clayton, J.(2011). On Money and Motivation: A Quasi-Experimental Analysis of Financial Incentives for College Achiev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46(3), 614-646.
- Taylor, D. M., & McKirnan, D. J.(1984). Theoretical contributions: A five-stage model of intergroup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4), 291-300.
- Tseng, W., & Newton, F.B.(2002).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ies for well-being. *College Student Journal*, 36(4), 591-597.
- 강동관 · 이규용 · 설동훈 · 임경택 · 오정은 · 김혜진(2010).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한 유학생 활용방안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교육부(202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고등교육통계편.
- 민숙원 · 송창용 · 윤혜준 · 김혜정(2020).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선호 탐색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예진(2024).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및 향후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s://www.kcue.or.kr/notice/sub06.php?at=view&idx=656073>
- 하연섭 · 김영록(2018).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최종보고서.
- Creswell, J. W.(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 Giorgi, A.(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 Giorgi, A. P., & Giorgi, M. B.(2003).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In P. M. Camic, J. E. Rhodes, & L. Yardley (Ed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Expanding Perspectives in Methodology And Design* (pp. 243-27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uba, E. G., & Lincoln, Y. S.(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 Phillips, T., & Norsworthy, B.(1997). *The World at Your Door*.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 경찰뉴스24. <https://www.policenews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9>
- 교육부(2024). 2024년 교육기본통계, <https://www.moe.go.kr/main.do?s=moe>
- 삼성꿈장학재단. <https://www.sdream.or.kr/w/web10gV>
- Florida College Access Network(2013). <https://floridacollegeaccess.org/news/all-or-nothing-study-shows-bright-futures-covering-100-tuition-more-effective-at-encouraging-college-completion-than-partial-scholarship/>
- POSCO포스코청암재단. <https://www.postf.org/asia/purpose>

## 필자 소개

성 명 장유진  
소 속 동명대학교 인권센터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전자우편 tuhrc@tu.ac.kr

성 명 이남연  
소 속 동명대학교 인권센터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전자우편 tuhrc@tu.ac.kr

## Abstract

# Exploring the University Lif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 A Phenomenological Study at D University -

Jang, Yoo-jin · Lee, Nam-yeon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university lif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ir adaptation processes. To achieve thi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degree programs at D University, all of whom had successfully adapted to university life and continued their studies for more than one year. Each interview was conducted once and lasted approximately 60 to 80 minut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following a four-step process. The analysis yielded 73 subcategories and 14 higher-order categories, which were further synthesized into seven core themes: 'Everyday experiences in university life', 'Concerns about academics and the future', 'Feeling like a stranger in the university',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resources', 'Psychological support foundations', 'Practical advice for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cialization through studying abroad'. This study highlights the lived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economic and psychological support systems, as well as opportunities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university life, to aid international students in sustaining their academic journeys.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University adjustment, University life experiences, Support system, Phenomenological study

투고일 2025. 06. 30 / 심사일 2025. 07. 13 / 게재확정일 2025. 07. 21

